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위기를 초래한 세계관 – 직선적 시간관

순환적 시간관 회복해야 생태사회

점과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길은 하나?

이 명제에 대해서 '유클리트 기하학'의 답은 '그렇다'이다. 그러나 비 유클리트 기하학 중 하나인 '리만기하학'의 답은 '아니다 무수히 많다'이다. 과거 지구는 평평했다고 생각했을 때와 같이 유클리트 기하학은 평면을 기준으로 공간을 정의하지만, 리만 기하학은 공간이 평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사실일까? 오늘날 리만기하학의 정의가 진실에 가깝다.

과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여, 태양이나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은 당연히 진리였다. 그리고 하나님 숭배외에는 모두 마녀, 사탄으로 몰렸던 봉건시대의 지배적 페러다임이었다. 그때 이와 반대의 주장을 한 이단아 코페니르쿠스는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이단아의 주장이 정설이 되었고, 당시의 봉건시대 주류의 세계관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날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 어리석었던 모든 생각을 다 벗어나 모두 옳은 사고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혹시 봉건시대와 같은 무지몽매한 세계관에 천착하여 실제의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던가? 이 질문의 대답은 불행히도 '그렇다' 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감옥을 가고 왕따를 당하며, 과학발전이 극도에 다다른 지금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이 사회의 천대받는 마이너이다. 그 마이너의 주장중에 하나가 바로 생태적 세계관이며, 그중에 하나가 직선적 세계관이다.

지리산 한자락을 굽이도는 함양 오도재길(사진 왼쪽)과 미국의 대륙횡단 고속도로(사진 오른쪽). 자연의 굴곡을 잇는 곡선의 길은 현대사회가 걸어가야 할 미래의 길이다.

생활속에 베인 직선적 시간관

직선적 시간관은 시간이 직선으로 흐른다는 세계관이다. 그래서 직선상에 현재를 시점으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 어제는 뒤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앞이라고 생각한다. 비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그 직선상에 나열하고 서열화한다. 1등이 있고 꼴찌가 있다. 선(先)이 있고 후(後)가 있다. 앞선 나라를 선진국, 뒷선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식은 앞선 것은 좋은 것이며 뒷선 것은 후지고 나쁜 것이라는 관념을 갖게 한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좋은 것, 이름하여 진보(進步)라고 한다. 그래서 그 멀리 높이 나아가 있는 것이 선진, 늦게 나아가는 것이 후진이다. 이렇게 앞으로 높이 나아가는 일은 끝이 없다. 무한히 위로 위로 올라갈 뿐이다. 그래서 오늘날 경제성장은 무한성장은 지향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나라가 미국, 유럽, 일본같은 선진을 따라 가려고 한다.

순환적 시간관은 하나의 행위가 곧 복잡한 연관과 상호의존속에 나에게 돌아오고 언젠가 결국 영향을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직선적 시간관은 반대이다. 나의 하나의 행위는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다.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버리면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지나가면 그만', '내 손을 떠나면 나와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오늘날 '하나뿐인 지구'를 마치 무한한 것으로 착각하여 무한생산하고 무한소비하게 한다. 이것이 현재 경제학이다.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결국 멀어져 나와 관계없게 된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버리고 쓰게 된다. 직선적인 시간관은 자원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무한정의 세계관이다. 그러나 순환적 시간관은 분명 '하나뿐인 지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한계를 인정하는 세계관'이다. 직선적인 시간관은 무한한 시작과 무한한 끝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작'과 '끝'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태초와 종말'이 있다. 앞서 썼던 글에서 순환적 시간관을 언급했다. 생태적 사회는 직선적 세계관을 넘어서서 순환적세계관, 순환적 시간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선은 속도를 의미한다. 일점을 목표로 빨리 도착하려한다. 경쟁을 통해 남보다 빨라야 하며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직선은 효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과정은 생략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계도 무시된다. 그래서 사람이 다치고 자연이 훼손되어도 문제삼지 않는다. "더 빨리, 더 먼저, 더 높이, 더 많이"의 세계는 바로 직선적 세계관이 오랫동안 인류에게 훈습되어 만들어진 문화인 것이다.

태초·종말로 이어지는 기독교적 세계관

린 화이트(Lyne White)는 "우리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뿌리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1967)"라는 논쟁적인 논문에서 기독교의 물질적 관점,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이 오늘날의 환경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아놀드 토인비 역시 인류가 자연에 대해 가졌던 유익한 외경심이 이스라엘에서 발원한 유대교,

직선적 세계관…한계 불인정, 유시유종

순환적 세계관…한계 인정, 무시무종

"시간 직선으로 흘러 되돌릴 수 없다"

진보주의자, 직선적 패러다임에 갇혀

그리스도교 그리고 회교에 의해 추방당해 버렸다고 비판하였다.

부연하자면 환경문제의 원인이 된 서구적 세계관, 특히 그 기반이 된 유대 기독교전통을 문제삼고 있다. 모세5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은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의 공통된 경전인데, 이중 창세기의 1장에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이 일단 인간이 다른 생물과 달리 신과 비슷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탈생물적 교만'의 출발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 인간에게 다른 생명, 무생명, 동물, 식물 등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지배의 명령을 내린 것이다. 결국 생물간의 '지배', '정복'이라는 개념이 역사속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신학자들은 이를 인정하면서 그동안 인간의 잘못된 성경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생태신학자들의 해석은 '인간이 신의 피조물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준 것'으로 인식해야함에도 잘못된 해석해 온 인식이 바로 근대 서구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면서 자원과 자연을 수탈하는 산업사회를 유지하게 만든 역사적 연원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 청지기'라는 용어도 또한 생명들과 평등하지 않은 우월적 존재임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시간인식의 문제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태초가 있으면 종말이 있고, 결국 역사와 시간을 태초에서 시작하여 종말로 흘러가는 직선적인 시간관을 갖게한 것도 바로 유대기 독교적세계관이라는 점이다. 순환적 세계관은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 말로 시작과 끝을 상정해야 하는 유시유종(有始有終)의 세계관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환경위기는 결국 종말로 가는 것인가? 그 종말은 곧 개인의 죽음을 포함하여 집단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생명을 개체생명단위로 사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죽음을 개체생명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는 죽지 않겠다' 개인의 죽음에 대한 집착을 갖게 만든다.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 아니듯, 죽음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생태위기가 주는 주요 메시지중요 하나이다.

"더 빨리, 더 먼저, 더 높이,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는 생산력의 수준을 줄이는 것이며, 청빈과 검약, 가난이 사회화되는 것을 궁극의 지향이라고 말할 때 가장 크게 부딪치는 문제가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라는 말이냐"이다. 그리고 그럴수는 없노라고 생각하면서 대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그 대안의 대부분은 현재의 소비수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산업사회의 부산물인 오염을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방법을 찾는다. 거의가 과학기술에 의존하거나 단순히 정책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수 있다.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직선적인 시간관에 갇혀있는 것이다. 앞이 있고 뒤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라는 것이다. 되돌릴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에겐 현재 아무리 환경오염이 심각해도 수직적인 경제성장의 방향을 바꿀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진보'주의자들도 이러한 직선적 페러다임에 갇혀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100년전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분명히 편리해진 측면이 있다. 10년전을 생각해보자. 그때 우리는 아주 불행했던가? 그때도 살만했다. 그러면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조금 부족했고 불편했지만, 지금보다 심각히게 불행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살만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좋은 것이라고 추구했던 삶,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행동이 우리를 위기로 빠트리게 했다면 우리는 보내버린 과거의 삶, 아니 잊혀진 과거의 삶을 다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편했지만 이웃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하고 살았던 시절의 지혜과 경험을 다시 한번 되살려 우리의 미래의 삶이 되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사용한다. 과거속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주의자들은 '진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대신 '전환', '공진화'라는 말은 종종쓰지만….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